

2023. 12. 21.(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자료

담당부서: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 김상신 02-2133-2450

신호시설팀장 이용수 02-2133-2479

신호운영팀장 박성수 02-2133-2486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4쪽

담당자 김정길 02-2133-2480

오정석 02-2133-2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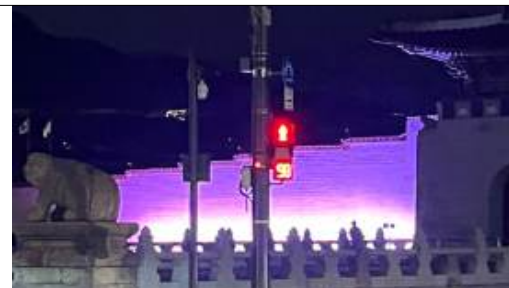
## 서울시, 빨간불 남은 시간 알려주는 신호등 시범 구축..답답함 해소·무단횡단 예방

- 시청 주변·광화문 월대 앞 등 5개소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설치 추진
- 신호등 빨간불 점등 시 남은시간 사전에 표기...보행자 불편사항 해소
-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답답함 해소하여 무리한 무단횡단 사고예방 기여
- 향후 시범사업 시민 만족도 모니터링 후 '24년 설치 확대 예정

서울시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and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해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시청 주변과 광화문 월대 앞 등 5개소에 올해 12월 시범설치 했다고 밝혔다.



시청 주변 2개소



광화문 월대 앞 3개소

-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란 기존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 뿐만 아니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까지도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최근 분석 결과에서 다양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부터 서울 시내에도 시범 설치가 시작되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을 기다리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 보행자가 미리 급하게 사전 출발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빨간불 신호 종료 6초 이하가 되면 시간 표기를 하지 않는다.
- 적색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은 신호등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어 보행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신호등 점등에 집중하여 빨간불에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도입에 따른 효과 검토 >

- ▶ 적색잔여시간 표시기 운영이 적색신호 횡단자(무단횡단) 감소에 효과적
  - 적색잔여시간 표시장치 보행자 만족도 72%
  - 신호주기 당 적색신호 횡단자 46% 감소
  - 적색표출로 보행자신호등을 바라보는 보행자 9.4%증가
- ※ 출처: 도로교통공단(2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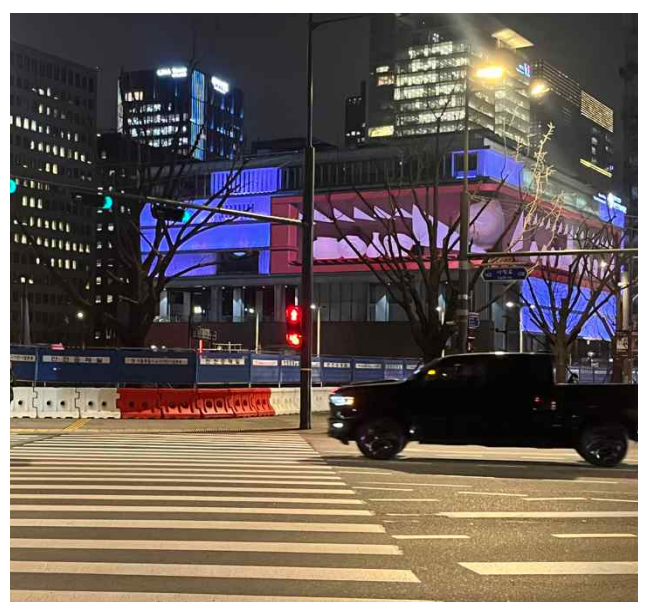
- 또한 서울시 신호운영은 다양한 행사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호주기가 시간대별로 변화가 많아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조기 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23년 하반기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신호주기와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색 잔여시간 표시가 정상 동작하도록 개선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2월 13일 시청광장, 시의회 앞, 광화문 월대 앞 등 5개소에 적색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시범적으로 설치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적색 잔여시간 표시의 시민만족도 등을 모니터링 실시하여 2024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설치는 적색 잔여시간 정보 안내로 보행자의 답답함을 해소하여 보행 편의를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설치사진



시청 광장, 프레스센터 2개소



광화문 월대 앞 3개소

□ 잔여시간 표시장치 이미지



보행신호등 보행신호



보행신호등 대기신호